

열부(烈婦) 천덕전(千德傳)

제주(濟州)에 열부(烈婦)가 있었다. 부친(* 곧 임진(林晉)인데, 저자 임제의 부친이 당시 제주목사였음)께서 판관(判官) 조인후(趙仁後)의 보고에 의거해 조정에 아뢰어 정문(旌門)을 세워주도록 청하였다. 나는 전(傳)을 지으니 이러하다.

“제주 곽지리(郭支里) 사람 사노(私奴) 연근(連斤)의 처이다. 그 이름은 천덕(千德)이니 어려서부터 재주 있고 자색이 고왔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살림을 꾸린지 20년쯤 지났을 때였다. 지아비는 공물(貢物) 수송을 위해 물으로 향해 가다가 화탈도(火脫島)에서 배가 침몰되어 죽었다. 천덕은 붕성(崩城)의 눈물이 흘러 다하자 이어 피가 흘렀다. 3년 동안 애통해 하며 상식(上食)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도 삭망(朔望)이나 명절을 만나면 호탈도 쪽을 향해 설위(設位)를 하고 제를 드리며 하늘을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니 원근에 듣고 보는 이들은 누구나 안쓰럽게 여겼다.

후에 죄 짓고 귀양 온 어떤 자가 천덕을 더럽히려고 좋은 말로 유혹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마침내 관가에 고발하여 위협하는 과정에서 곤장 80대를 맞는 데에 이르렀다. 이에 천덕은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여 풀려나왔다. 자기 친척들에게 ‘이 놈이 분명 나의 재물을 탐낸 것이다.’ 하고 드디어 옷 한 벌, 소 한 마리, 목면(木棉) 30곳[端]을 바치고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애월소(涯月所)의 여수(旅帥)로 있던 자가 제 세력을 믿고 사람을 시켜 감언이설로 그 아버 김청(金淸)을 회유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여수에게 주기로 약속해버렸다. 천덕은 속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화촉(華燭)의 저녁에야 비로소 알았다. 드디어 목을 놓아 울며 자기 손으로 방에다 불을 놓았다.

이튿날 아침에 스스로 목을 매어 금방 죽게 되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황급히 구출하여 거의 죽다 깨어났다. 다시 또 자기 머리털을 자르고

더럽고 해진 옷을 걸치고서 죽기로 맹세하니, 그 아비도 깨닫고 더 강요하지 못했다.

천덕은 나이 39세에 지아비를 여의고 지금 60세가 되었다. 전후로 강포한 자에게 겁탈을 당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뜻은 종시 변치 않았다. 아무리 옛날의 열녀라도 이보다 장할 수가 있으랴.

더구나 천성이 효도에 지극하여 아비가 80여세로 병상에 누워있는데 천덕은 의상을 풀지 않고 밤낮으로 간병하며 약시종을 들었다. 꼭지리 사람들은 모두 그 효성에 감동되었다 한다.”

소치(嘯癡)는 이에 덧붙여 말한다.

“천덕은 남쪽 변방의 한 하천한 여자다. 호미질하고 김매는 일이나 하였으니 당초에 규문(閨門)의 범절이란 알지 못했으며, 배 짜고 길쌈하는 것이 업이었으니 언제 여훈(女訓)의 규범을 배워 익혔으랴. 그럼에도 오직 사람을 섬김에, 절조가 우뚝 서 보통으로는 견주지 조차 못하리라. 이야말로 천품이 순수하고 조용하며 배움을 기다릴 것 없이 능한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은 더욱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아!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자들이 오로지 이해만 생각해서 심지어는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친구간에 서로 배반하니, 크게는 멸망하는 때와 위급한 즈음에 당해서 나라를 파는 자, 임금을 잇는 자가 있다. 천덕의 죄인이 되지 않는 자 극히 드물 것이다. 슬픈 일이로다.”